

식품산업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 '탄력'

동북아 식품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익산시 왕궁면 일대에 조성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사업 추진 가속화 및 식품산업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에 탄력을 받는다.

익산시에 따르면 올해 국가식품클러스터 국가예산은 395억원으로 전년 216억원보다 83% 증가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타깃별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으로 전년도 대비 15.5% 증가한 53.6%(기업 89社)의 분양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조세특례법 개정으로 5년 동안 법인·소득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자금 운영 부문에서도 상당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2월 4일, 정부가 5대 유망식품(특수식품, 기능성식품, 간편식품, 친환경식품, 수출식품)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익산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5대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산업생태계 환경 조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청년식품 창업허브 구축 등 2개 신규 사업 통해 식품벤처 일자리 창출의 산실로 육성

입주 기업들, 조세특례법 개정으로 5년 동안 법인·소득세 감면 혜택

열악한 교통·정주여건 개선 위해서, 입주기업에 교통수당 등 지원

전북도와 공동으로 산단에 부족한 복지시설 포함 복합문화센터 구축

◀ 국가식품클러스터 조감도

올해 2개 신규 기업지원시설 추가 구축 식품벤처 및 청년창업 지원 강화

익산시는 현재 운영중인 7개의 기업지원시설과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2개 사업에 이어 올해 2개의 신규 사업을 통해 식품벤처와 일자리 창출의 산실로 육성한다.

우선 올해 신규 사업으로 아이디어와 기술은 있으나 자본이 부족한 청년 예비창업자에게 시제품제작 기회와 창업 교육·공간 제공 등 창업의 손과발을 지원할 수 있는 '청년식품 창업허브 구축' 사업에 266억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완료한다.

이에 따라 클러스터의 핵심자원(익산시, 진흥원, 입주기업 등)과의 개방형 기술 혁신을 통해 창업·고용이 연계되는 혁신 일자리 선도 모델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또한 1인 가구의 증가로 성장하는 HMR 식품산업 대응을 위해 기반기술 확보와 관련 기업 지원으로 국내 식품산업 경쟁력을 강화·육성하고자 45억원을 투입해 '가정편의식(HMR) 기술지원센터'를 올해 안에 구축한다.

이를 통해 HMR 제품 상용화 기반기술 및 상품화 기술지원으로 식품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HMR 식품의 전진기지로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대외적인 위상과 식품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력을 강화한다.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농식품 원료 중계·공급센터'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19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입주 기업들에게 우수한 농식품 원료의 유통 단계를 축소해 안정적으로 공급함과 동시에 지역 농가 소득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의 섭취 목적·용도에 맞게 액상이나 젤리 등의 형태로 만드는 '기능성식품 제형센터'도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국비 176억원으로 중소 기업들의 위약 생산 뿐 아니라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대응 기술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 유인책 등 체계적 기업지원 추진 기업성장 및 활성화 기대

각종 인프라 구축과 함께 입주기업과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투자 유인책 등 체계적 기업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

역 외에서 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입주하는 기업에게 법인·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산단 분양률 증가와 일자리 창출, 입주기업 조차 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 신고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신규 입주기업 뿐만 아니라 기존 입주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익산시는 식품 클러스터의 열악한 교통,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입주기업에 교통수당과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입주기업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편의점이 지난 4일 문을 열면서 근로자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었고, 전북도와 공동으로 산업단지에 부족한 편의·복지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 문화센터를 구축해 근로자 복지환경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기업유치 목표치 53%를 넘어섰고 각종 인프라 확충과 조세감면 혜택이 더해져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식품산업 혁신성장의 메카로 지원·육성해 100년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료는 연간 약 900만톤 규모로 그 중 농어업 연계 효과를 34%로 추정(한국은행)할 경우, 연간 약 5조원의 농업 생산유발 효과가 창출돼 농어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장영원 기자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행동수칙

자료: 질병관리본부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 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하지 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 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